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5.10.5 (624호)

2. 아침묵상

이번주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
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추석

한국은 추석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소하게 나마 성도들과 추석의 풍성함을 나
누는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라미퍼지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9/28) 현금 통계**

선교구제 현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현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61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0:1-8

특송 Special Song

교회소식 Announcement

말씀선포 Sermon

하늘로부터 온 권위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주일대표기도

10월 12일

최빅토리아

10월 18일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부 성도들과 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며 성전 건축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전의 개념은 모세의 성막부터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이 자리를 옮기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은 자신만 이리 호화로운 궁에 머무는 것이 가당기나 하냐라는 생각에 성전건축을 계획했고 결국 솔로몬 시대에 와서 첫번째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자제를 동원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봉헌하던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제한된 공간에 갇혀 계실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너희의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것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삶과 성전을 구분하여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삶의 터전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의 술한 경고끝에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열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성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옛 모형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은 일시적인 청소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지어진 성전을 파괴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잘못된 옛 성전이 파괴됨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엄청 당혹스럽고 불만스럽지만 그것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이상 하나님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